

헬기사격 담은 5·18 영화 관객 만난다

기총소사 CG 처리 '임을 위한 행진곡' 10월 개봉 예정 송강호 주연 힌츠페터 취재기 '택시 운전사' 7월 상영

5·18민중항쟁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 2편이 올 여름부터 잇따라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완전한 진상규명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권 아래서 5·18을 다룬 영화 2편이 5·18의 대중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영화 속 5·18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영화업계에 따르면 영화제작사 더랩과, (주)무당벌레필름 측은 각각 '택시운전사'(사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올 여름과 가을에 각각 개봉 예정이다.

특히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경우 지난 25일 옛 전남도청 광장과 전일빌딩에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장면과 주인공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필름에 담았

다. 문 대통령이 5·18기념식에서 진상을 밝혀줬다고 공언한 '헬기 기총소사' 장면은 컴퓨터그래픽(CG)으로 처리해 관객에 선보이게 된다고 제작사 측은 강조했다.

무당벌레필름 측은 27일에는 화순 능주면사무소 앞에서 사전 모집한 시민 단원 등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희생자 영정사진을 앞세운 시위행렬'을 계엄군이 막아서며 대치하는 장면을 찍었다. 6월 내 크랭크업(촬영 완료)을 목표로 현재 90% 이상 촬영이 진행됐다. 올 10월 개봉 예정이다.

영화는 80년 5월 의문사한 아빠와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살아가는 엄마, 개그우먼 딸 희수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겪는 애증을 담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인권 유린과 폭압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찾는 휴먼 드라마로 그릴 예정이다. 배우 김꽃비, 김부선, 전수현, 김재희, 이한우, 임승규 등이 출연했고 박기복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제작사 관계자는 "시민들 후원을 받아 5·18 당시 전일빌딩 헬기사격, 계엄군의 집단 발포, 마지막 항쟁까지 80년 5월 광주를 온전히 담아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배우 송강호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 '택시 운전사'(감독 장훈)도 촬영을 마치고 이르면 오는 7월 중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필름

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씨의 취재기를 담아냈다. 기자 힌츠페터(토마스 크레취만 분)를 태우고 우연히 광주에 온 택시운전사(송강호 분)의 이야기가 영화의 중심이다.

힌츠페터씨는 2003년 제2회 송건호 언론상 수상 당시 "80년 5월 광주까지 태워주고 안내해 준 용감한 택시기사 김사복씨에게 감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힌츠페터씨를 태우고 광주로 왔던 택시기사는 길목마다 검문을 벌이던 계엄군을 따돌리고 독일 방송국을 통해 5·18의 참상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저지 않은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유해진, 류준열, 박혁권 등이 송강호와 함께 출연했다. 제작사와 배급사 측은 예초 5·18을 맞아 5월 개봉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측과 달리 극장가 최대 성수기인 여름방학 시즌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예술고 이전 부지 안일 대처 예산낭비·초중 통폐합 오락가락

광주시교육청 왜 이러나

교육감 직무수행 지도도도 하락

광주 교육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청 수장 스스로 강조했던 원칙을 무너뜨리며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성급한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어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직무수행 지도도도 1년 만에 3위로 '추락',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발표한 4월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도도 조사 결과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49.5%로 3위를 차지했다. 장 교육감은 전담보다 7.3%포인트 하락했다.

광주교육청 안팎에서는 장 교육감이 지난 1년간(2016년 4월~2017년 4월) 이뤄진 지도도 조사 결과, 단 한 차례도 3위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9차례나 직무수행 지도도 1위에 올랐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인정 받았다. 장만재 교육감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도 고작 3차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교육청의 어설픈 행정과 예산 낭비 사례 등이 맞물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교육계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초·중학교 통폐합(광주일보 1월 11일자 1·6면)과 관련, 학생·학부모·동문들을 상대로 한 설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통·폐합 작업이 잠정 중단된 사

태가 꼽힌다. 관련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한 달도 못돼 '잠정 중단'〈광주일보 5월 17일자 7면〉방침을 밝혀 설익은 행정으로 학생·학부모 간 혼란과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면적 3만6938㎡)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금액인 346억원에 매입, 예술고를 옮겨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안일하게 대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교육청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금액(352억 4200만원)과 전남교육청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340억원)을 근거로 한 조정금액이라는 점에서다. 또 감정평가액이 '공공청사가 아닌,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 등으로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만큼 학교 부지로서는 턱없이 비싸게 구입하게 됐다는 게 시의회 측 주장이다.

당장, 광주시의회는 오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교육문화위원회가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청의 돌봄전담사(시간제) 공무직 전환 과정도 행정의 신뢰성을 놓고 지적이 많다. 장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 돌봄전담사들의 시위와 현관 점거에도 "원칙이 훼손되면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원칙, 정책의 일관성, 행정의 신뢰성 등이 깨질까 염려된다"는 입장을 전 교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그러나 2주 만인 지난 8일 입장을 바꿔 경력 1년 6개월 이상인 돌봄전담사들을 경력 경쟁 채용 방식으로 고용(공무직 전환)키로 했다.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으로 전담사 공개 채용 공모 경쟁률도 10대 1이 넘었을 정도였다.

/김지윤기자 dok2000@



통밀바다 놀이터 광주·전남지역 낮기온이 30도를 기록한 28일, 제11회 '광산우리밀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통밀바다 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0, 해질녘 19:40, 달돋이 08:47, 달질 23:06

건강관리 유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7/31	보성	맑음	12/30
목포	맑음	18/27	순천	맑음	16/32
여수	맑음	19/31	영광	맑음	15/29
나주	맑음	13/30	진도	맑음	17/29
완도	맑음	17/29	전주	맑음	17/30
구례	맑음	13/32	군산	맑음	16/28
강진	맑음	13/30	남원	맑음	13/32
해남	맑음	13/29	홍산도	맑음	17/26
장성	맑음	13/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부	남바다	남서~서	0.5~1.5	남~남서	0.5~1.5
	남해	남서~서	0.5	남서~서	0.5
서부	남바다(동)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바다(서)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생활지수

- 식중독: 관심
- 매우높음: 매우높음
- 자외선: 자외선
- 피부질환: 보통

◇주간 날씨

30(화)	31(수)	6/1(목)	2(금)	3(토)	4(일)	5(월)
☀	☁	☀	☀	☀	☀	☀
18/30	18/27	18/28	17/27	15/27	16/28	16/29

연일 낮기온 30도 안팎 무더위... 31일 비소식

5월 마지막 주엔 낮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9일 광주·전남지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8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 분포를 보일 것이다. 미세먼지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에는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31일에는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 환영... 유치원도 국가부담을"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방침과 관련, 환영의 뜻과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에 국고지원 방침과 관련, "적극 환영한다"면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에 한발 다가가게 됐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예산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유·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또 "미세먼지 해결·석면 제거·우레탄 시설 철거·내진 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와 교육 체제의 혁신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확대 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논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협의회는 학교교과교육혁신·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유아 및 초등학교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와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만원 / 월 4만 7천원부터

농협 업무제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